한마음으로 준비한 콘서트… 군장병 큰 위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53사단 125연대 장병 위한 콘서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이하 부산 한마음선원)이 태종대 입구에 위치한 53사단 125연대 군장병들을 초대해 콘서트를 마련했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12월 14일 부산 한마음선원 대강당에서 '제1회 늘푸른 콘서트' 를 개최했다.

늘푸른 콘서트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항상 푸르게 가지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군장병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어려운 법문이 아닌 동영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심 공양, 불교문화체험 및 1부 댄스콘서트와 2부 뮤직콘서트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부산 한마음선원의 학생회 사물놀이 무대를 시작으로 대장부 댄스팀, 장검무, 밸리댄스, 걸그룹 The Fix의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2부 뮤직콘서트에서는 White Elephant 밴드, 경혜여고 2학년 장서영의 솔로, 어린이 합창단의 선법가, 경혜여고 3학년 강예은의 솔로, 청년 합창단의 선법가 등이 어어졌고 마지막은 참가자 전원의 '거위의 꿈' 합창으로 마무리 됐다. 또한 사찰 퀴즈 및 넌센스 퀴즈로 경품도 전달하며 장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여기에 대강당 벽에는 어린이 법회와 학생부 회원들의 위문편지로 꾸며져 군장병들을 응원했다.

늘푸른 콘서트 출연진들은 부산 한마음선원에 소속된 각 신행단체들로 이번 군포교 위문공연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산 한마음선원 청년회 신도회장이자 장검무로 무대를 꾸몄던 임나영(33) 씨는 "스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모든 법우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콘서트였다"며 "짧은 기간 준비했지만 즐겁게 무대를 꾸몄고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댄스콘서트 등 100여 장병 호응
지난해부터 매달 법회로 군포교
매년 12월 콘서트 개최 계획도

또한 이번 콘서트는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콘서트를 진행해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의 이미지를 넘어 한층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여한 조민우 일병은 "불교를 밖에서 봤을 때는 근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참여해 보니 편안하고 즐거워 다음에 또 참석하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부산 한마음선원은 12월 14일 부산 한마음선원 대강당에서 군장병들을 위한 '제1회 늘푸른 콘서트' 를 개최했다. 왼쪽은 부산한마음선원 회원들의 공연장면, 오른쪽은 즐거워하는 군장병들

부산 한마음선원의 53사단 125연대와의 인연은 2013년 1월부터 법회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이상철 연대장의 부탁으로 시작된 법회는 현재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동영상 법문, 게임, 퀴즈, 참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시작 당시에는 법당이 없어 회의실에서 법회를 하며 참가자도 10여명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법당 설립과 함께 현재는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40여명으로 늘어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군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혜영 스님은 "군포교의 핵심은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법문과 다가가기 힘든 근엄함을 버리고 편안함으로 눈높이를 맞춰 다가갔다는 의미다. 법회의 방식도 색다르다. 법문보다는 한달 동안 마련한 새로운 동영상으로 마음에 대해 설명하며 군장병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적 깊이와 체험을 위해 명상법을 교수하고 명상실참을 진행해 불교의 참뜻을 가르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포교 후원회를 구성하고 매 법회 때마다 다양한 간식을 준비해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군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군포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젊은 장병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군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전했다. 이어 혜도 스님은 "앞으로 군 장병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 후에도 계속 공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사회에서도 포교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늘푸른 콘서트를 매년 12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체육인 불자 장학금 전달

12월 15일 설법전에서… 11명에게 총 1100만원 전달

통도사가 체육 불자인들을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12월 15일 설법전에서 체육인 불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및 상장을 수여했다.

장학금 대상자는 경남체육고등학교 임지현 외 6명, 창원대학교 제갈민우 외 1명, 진영고 원지수, 창원여고 김경영 등 총 11명으로 각각 100만원 씩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주지 원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있는 체육인들은 불자로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위를 선양하고 부처님을 지극히 믿으며 훈련 중인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마련했으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불자 체육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창원대 권기홍 학생은 "불교의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고된 훈련도 인내하고 이겨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체육인 불자 인재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이 12월 15일 체육인 불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은사스님 본받아 수행에 전념하자"

은해사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

팔공산 은해사(주지 돈관)가 12월 13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부도탑과 조사전을 참배한 뒤 경내 템플스테이관인 육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실 혜인 스님,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팔공산 은해사가 12월 13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1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다례재를 봉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큰스님의 유지에 따라 설립한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는 지역의 전통명문사학의 면모를 갖춰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우뚝서게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모두 한해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은해사 조실 혜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혜인 스님은 "은사 스님의 자비와 지혜, 청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수행에 전념하자. 특히 문도, 문중스님들은 연로하신 노스님들을 잘 모시자"고 전했다.

동곡당 일타 대종사는 1942년 친가, 외가 식구 41일 명 모두가 출가함에 따라 양산 통도사에서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총림 율주, 조계종 전국 구족계 단일계단 전계대화상,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1999년 11월 29일 하와이 와불산 금강굴에서 입적했다. 저서로는 〈생활속의 기도법〉 등 20여 권이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초기경전으로 삶의 근본 문제 해결한다

부산 해피법당 개원 기념 특별 강의 … 1월 6일부터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부처님의 경전으로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강의가 열린다. 한국 테라와다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 스님은 부산 법당 개원 기념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2015년 1월 6일부터 23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의는 새출발법회와 해피설법회로 나눠 진행된다.

새출발법회는 초기불교경전(니까야)을 처음 접하거나 기초교리 공부를 원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피설법회는 출가자, 또는 불교학자, 명상지도자 등 전문적인 공부를 원하는 불교신자를 대상으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 된다. 해피설법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무료다. 해피 스님은 "새출발 법회는 처음 초기불교를 접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따라 올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해피법당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기본 정기법회, 일요일 오후 2시 근본 경전 니까야 중 중요 경전을 독송하고 문답하는 '독경법회' 를 연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해피스님과의 대화' 를 열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전을 바탕으로 문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사념처(四念處) 수행지도 및 실참은 월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부산 해피법당 수강 신청은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http://cafe. naver.com/happybupdang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하성미 기자

"승가의 화합과 발전 도모하겠다"

진광 스님 운문사 신임 주지로 취임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에 진광 스님이 취임했다. 이에 운문사는 12월 14일 경내에서 취임 인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운문승가대학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진광 스님〈사진〉은 앞으로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회주스님과 여러 대중스님, 불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운문사가 한국 최대 비구니 승가 교육도량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다. 청정한 비구니 승가의 화합된 모습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진광 스님은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 · 사미계를 수지했고,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90년부터 운문승가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운문승가대 학감(2010년), 조계종 승가고시 전문위원(1999~2003년) 등을 지냈다. 한편, 이날 취임식과 함께 운문사는 '오백전 100일 기도 회향' 기념식을 가졌다.

주지 진광 스님은 "매년 연말이면 운문사에서는 오백나한 백일기도를 한다.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선한 공덕과 노력을 일체 중생에 널리 나누고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향하는 삶이란 나와 일체의 존재를 이익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며 회향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